

# 주간 통일정세

2016-23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4	北 김정은, 새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시찰·평양속도 과시(연합뉴스) 北, 애연가 김정은, 80여일 만에 담배 든 사진공개(연합뉴스)	
	6.6	200일 전투 군중대회, 북한 전역으로 확산(연합뉴스) 北매체들, 소년단 창립 70주년 맞아 학생들에 충성심 강조(연합뉴스)	
	6.7	北 '제재탈피' 외교 총력전·최태복 베트남·라오스 방문(연합뉴스) 北, '70일전투' 기간 어선 침몰로 사망한 선원들에 국가표창(연합뉴스) 北김정은, '미래 친위세력' 소년단 챙기기·창립 축하공연 관람(연합뉴스) 北 최태복,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와 회담(연합뉴스)	
	6.8	NHK "北리영호, 김정은 허가없이 군부대 움직여 숙청"(연합뉴스) 北 김정은 생모 본명은 고용자·일본식 이름 지적에 개명(연합뉴스) 北, 쿠웨이트 파견 건설노동자 집단반발하자 강제소환(자유아시아방송) 北, 백두산발전소 속도전 강행하다 사상자 속출(연합뉴스)	
	6.9	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최·김정은 체제 완성 포석(연합뉴스)	
	6.10	北 김정은 당대회 이후 한 달·'경제 행보에 주력(연합뉴스) 北 김정은, 잇단 민생 행보·류경김치공장 시찰(연합뉴스) 北, 당규약에 핵보유국 명시안해·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연합뉴스)	
	경제	6.7	北 중앙은행, 송금·대출 업무 부분 개시(자유아시아방송) 北 고려항공, 5년째 세계 최악 항공사(연합뉴스)
		6.9	파키스탄서 北외교관 주류밀매 7년간 최소 10건 적발(연합뉴스) 北정권 자금세탁 도움 의혹·유럽계 투자회사 해산(연합뉴스)
		6.10	北, 군인을 민간 노동자로 위장해 중동 파견(자유아시아방송)
	사회 문화	6.6	北 매체, 개성시 지카바이러스 방역대책 활발(연합뉴스)
외교 국방	6.4	美상원의원,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관련 대북제재도 강화해야(연합뉴스) 제재 대상 北선박, 日 입항 확인·정부는 부인(연합뉴스)	
	6.5	北, 美 재무부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에 강력 규탄배격(연합뉴스)	
	6.6	中서 6자회담국 1.5대화 NEACD·北 참석여부 주목(연합뉴스)	
	6.7	美 5억원 들여 '제재대상 北인사' 자금 5천만원 동결(연합뉴스)	

	IAEA “北, 영변 핵 재처리 시설 가동했을 수도”(연합뉴스) 폴란드, 핵실험 이후 北노동자에 비자발급 안해(미국의소리)
	中, 北 플루토늄 재처리 동향에 대화·협상 재개 강조(연합뉴스) 日, 北 플루토늄 정보수집 강화...아베 위성정보센터 방문(연합뉴스) 러시아, 北 플루토늄 생산 재개 소식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6.8	北,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세계 최약...韓 29위(미국의소리) 美 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플루토늄 생산 재개”(연합뉴스) 美연구원 “북한, 핵개발 외 재래식 무기에도 상당한 투자”(연합뉴스) 美 국무부, 北 핵재처리 관련 동향에 큰 우려(연합뉴스)
6.9	우간다 北과 협력중단 행동으로...軍 정보책임자 다음주 방한(연합뉴스)
6.10	中, 북중박람회 일정 공식 확정...대북 경협 회복 조짐(연합뉴스) 유엔 北 김정은 직함 ‘당 제1비서’→‘위원장’ 변경(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6. 4.

##### ■ 北 김정은, 새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시찰...평양속도 과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만경대 소년단야영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야영소 시설을 둘러본 뒤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이 응축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이 또 하나 보란 듯이 솟아올랐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의 야영소 현지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함.
- 한편,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룡악산비누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비누공장 건설 현장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 ■ 北, 애연가 김정은, 80여일 만에 담배 든 사진공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담배 피우는 모습이 80여 일 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새로 건설한 만경대 소년단야영소를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손에 연기 나는 담배를 들고 수행원과 이야기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담은 5단짜리 컬러 사진을 실음.
- 한 대북 전문가는 “담배를 즐겨 피웠던 김일성 주석에 대한 향수를 심어주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이 자주 공개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을 공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함.

2016. 6. 8.

##### ■ 北김정은, '미래 친위세력' 소년단 챙기기...창립 축하공연 관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래 친위세력'인 소년단을 적극 챙기고 있음. 김 위원장은 7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0돌을 축하하는 종합공연 '세상에 부림(부러움)없어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체조선의 자랑이고 희망인 우리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강화발전 되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조직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대오)로 억세계 자라나라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당 중앙위 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등이 수행함.

2016. 6. 10.

■ **北 김정은 당대회 이후 한 달…'경제' 행보에 주력(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폐막 이후 '민생 경제' 분야 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됨.
- 10일 북한 매체와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일정(평양시 군중대회·참가자 기념사진 포함)이 마무리된 이후 한 달 동안 총 13회에 걸쳐 외부 공개 행사에 나섬.
-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보도시점) 기계설비 전시장을 시작으로 양묘장, 기계공장, 제염소, 비누공장 건설장 등 대부분 민생경제 분야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했다. 경제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이나 안과종합병원 건설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체육기자재 공장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 곳에 김 위원장의 발걸음이 집중됨. 반면 당 대회 이전 찾았던 군부대 훈련 시찰 보도는 완전히 자취를 감춤.
- 한편 당 대회 이후 고위 간부들의 김 위원장 수행 횟수에서는 조용원 당 부부장이 가장 잦은 10회로 대부분 일정에 동행, 김 위원장의 최측근임을 과시함. 이어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7회,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6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4회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회 수행함.

■ **北 김정은, 잇단 민생 행보…류경김치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제7차 당대회 폐막 이후 잇달아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을 시찰했다고 10일 보도함.
-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 조용원·신만균 당 중앙위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동행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6. 7.

### ■ 北 '제재탈피' 외교 총력전...최태복 베트남 라오스 방문(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야기된 국제사회 제재국면과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지난 6일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7일 보도함.
- 통신은 최 단장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검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적극 이바지할 우리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함.

2016. 6. 8.

### ■ 北 최태복,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서기와 회담(연합뉴스)

-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분냥 보라치트 당 총서기(서기장)와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최 부위원장은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사실을 전하며 “라오스 당과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지난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적도기니 방문 이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쿠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중국), 최태복 당 중앙위 부위원장(베트남·라오스)이 잇달아 공산권 국가를 방문함.

### ■ NHK “北리영호, 김정은 허가없이 군부대 움직여 숙청”(연합뉴스)

- 4년전 해임된 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허가없이, 열병식에 참가한 군 부대를 움직였다는 이유로 숙청됐다고 NHK가 자체 입수한 북한군 기밀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NHK는 2년전 북한 군 부대 산하 무역회사 간부로부터 1만 2천 쪽 분량의 군 조직부 비밀문서를 입수했다며 지난 5일 방영한 북한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소개함. 문서에는 “어떤 부대 일꾼들은 반당혁명분자 리영호놈의 직권에 눌러 그놈의 요구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처신해 인민군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 통제 강화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데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는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 北 김정은 생모 본명은 고용자...일본식 이름 지적에 개명(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의 본명이 '고용자'라는 주장이 제기됨.
- 고영기 데일리NK 재팬 편집장은 역사정립연구소가 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김일성과 북한 정권 바로 알기' 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북한의 대외선전용 사진잡지인) 조선화보 일본어판 1973년 3월호를 보면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이 '아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긴 용자(고용희)는 원하는 대로 공짜로,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했으며 이제는 공훈배우로서 훌륭히 활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고 편집장은 1953년 일본에서 태어난 고용희가 '고용자'라는 한국 이름과 '다카다 히메(高田 姫)'라는 일본 이름 등 2개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1962년 북송 이후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용자'를 '용희'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이어 고 편집장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가 1972년 12월 30일자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공훈배우 명단에서 '고용희'로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 다. 공식행사

2016. 6. 6.

#### ■ 200일 전투 군중대회, 북한 전역으로 확산(연합뉴스)

- 북한의 올해 두 번째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 군중대회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6일 200일 전투 군중대회가 지난 4~5일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중앙방송은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다"면서 "도당위원장들의 보고에 이어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지식인, 청년대표들이 결의토론을 했다"고 전함.

2016. 6. 9.

■ **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최...김정은 체제 완성 포석(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면서 “대의원등록은 주체105(2016)년 6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밝힘. 앞서 제13기 3차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4월 9일 열림.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등 조직 개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적 인사 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그간 북한은 당 대회 이후 조직과 인사, 정책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관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고인민회의는 내각과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의 틀을 완성하는 차원의 행사”라면서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직함을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한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함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6. 7.

■ **北, '70일전투' 기간 어선 침몰로 사망한 선원들에 국가표창(연합뉴스)**

- 북한이 '70일 전투' 속도전 기간인 지난 3월 강풍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어선이 침몰해 사망한 선원들에게 7일 국가표창을 수여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안남도수산관리국 가마포수산사업소 2선단 1728호 선원들에게 국가표창이 수여됐다”고 보도함.
- 앞서 노동신문은 서해 몽금포 수역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 1728호가 지난 3월 9일 오전 1시께 풍랑으로 침몰했으며, 홍 선장을 포함한 선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함.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셨다”라는 말이 홍 선장의 마지막 교신이었다고 덧붙임.

2016. 6. 8.

■ **北, 쿠웨이트 파견 건설노동자 집단반발하자 강제소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 파업 등 물의를 빚자 이들을 강제 소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RFA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 대신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표를 주겠다는 자국 건설사의 제안에 반발, 지난해 12월 집단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킨 노동자를 강제 귀국조치할 때는 호송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에 석고 봉대를 감게 해왔지만, 이번에는 주위를 의식한 듯 깨끗한 옷을 입도록 했다”고 말함.

#### ■ 北, 백두산발전소 속도전 강행하다 사상자 속출(연합뉴스)

- 북한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2호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전투기록장을 펼치고(3)’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체 돌격대가 떨쳐나 발전설비 수송전투를 벌린(별인) 그 나날에는 수백 리 길을 걸으며 심한 동상까지 입은 돌격대원들도 있었고, 미끄러지는 발전설비를 구원하다가 숨진 꽃 같은 간호원(간호사) 처녀도 있었다”고 보도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공식매체가 건설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보기 드문 케이스”라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200일 전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함.

2016. 6. 10.

#### ■ 北, 당규약에 핵보유국 명시안해…김정은, 위대한 령도자(연합뉴스)

- 지난달 초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칭이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영도자)”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됨.
-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로동당 규약 주체105(2016)’ 서문은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동지는 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을 최후승리로 이끄는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라고 명시함. 규약은 이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노동당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수령”이라면서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이라고 밝힘.
- 하지만 북한은 각종 관영 매체와 주요 인사 발언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당 규약에는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음. 애초 예상과 달리 북한이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 비판을 피해가면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6. 6.

### ■ 北매체들, 소년단 창립 70주년 맞아 학생들에 충성심 강조(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6일 조선소년단 창립 70주년을 맞아 300만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사설을 싣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300만의 총폭탄이 되자, 이것이 우리 소년단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 신문은 같은 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위대한 태양의 축복받은 300만 소년단원들은 항상 준비되었다”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고 선동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소년들이 있지만, 절세위인들의 사랑 속에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마음껏 나래치는 선군조선의 소년단원들처럼 긍지 높고 자랑스러운 소년들은 없다”고 주장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2016. 6. 10.

### ■ 北, 군인을 민간 노동자로 위장해 중동 파견(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현역군인을 민간인 노동자 신분으로 위장시켜 중동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중동 현지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은 군인들을 중동지역에 보낼 때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시키고 파견 전에 머리를 기르게 한다”며 “군인들이 일반 노동자들의 일감을 빼앗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함. 북한 당국이 군인들을 건설 인력으로 파견하면 따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통제가 수월하다는 것임.
- 중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북한의 건설회사인 남강건설과 철현건설을 통해 들어오는 북한 군인들의 수가 최근 2~3년 동안 부쩍 늘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나. 주요조치

2016. 6. 7.

### ■ 北 중앙은행, 송금·대출 업무 부분 개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중앙은행이 최근 송금과 대출 업무를 부분적으로 개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국가은행들이 부분적으로 송금과 대출 업무를 시작해 공장 기업소 간 거래는 행표(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유가 증권)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로 바뀌었다”고 밝힘.
- 대북 전문가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내부에 도는 외화를 끌어내려고 시정금융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마당에 있는 돈을 끌어내도 대북제재를 상당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이 전문가는 북한의 잦은 화폐개혁에 실망한 북한 주민들이 장롱 속에 감추어둔 돈을 순순히 국가은행에 맡길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임.

## 다. 경제 상황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6. 7.

### ■ 北 고려항공, 5년째 세계 최악 항공사(연합뉴스)

-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영국의 민간 조사기관에 의해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선정됨.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 트랙스는 최근 전 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등의 평가를 통해 고려항공에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별 1개(최고 등급은 별 5개)를 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공식 취항지는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양(沈陽),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이며, 월 1회 쿠웨이트 노선과 최근 운항을 시작한 중국 산둥(山東) 성의 칭다오(靑島)와 지난(濟南) 행 전세기, 국내선인 어랑 행까지 합하면 총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고 VOA는 덧붙임.

2016. 6. 9.

■ **파키스탄서 北외교관 주류밀매 7년간 최소 10건 적발(연합뉴스)**

-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 7년간 술을 몰래 팔다 적발된 사례가 적어도 1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VOA는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의 세관이 2009년 8월 1일 북한 외교관들의 면세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처음 압류했으며, 특히 북한 외교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주류밀매가 2013년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파키스탄의 암시장에서는 면세로 35달러 수준인 조니워커 위스키 1병, 20달러 수준인 하이네켄 맥주 1상자가 각각 70달러와 150달러 선에 거래돼 북한 외교관 들은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VOA는 전함.

■ **北정권 자금세탁 도움 의혹' 유럽계 투자회사 해산(연합뉴스)**

-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북한 정권의 자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아온 유럽계 투자회사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가 해산 절차에 들어감.
-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는 9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를 열어 북한에서 사업을 '즉각(with immediate effect)' 중단키로 했다면서 회사가 해산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 공지한다는 계획임.
- 대동크레딧은행과 조선대성은행은 모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대가 발표한 경고 대상 금융기관 목록에 오른 금융기관들임.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6. 6.

■ **北 매체, 개성시 지카바이러스 방역대책 활발(연합뉴스)**

- 개성시에서 지카바이러스를 차단하려는 사업이 활발하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가 6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최근 분계연선(군사분계선 인접)도시 개성시안의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지카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잘해나가고 있다”면서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모든 의료 일군들이 지카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이 사업에 앞장서서 주민들을 이끌도록 조직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시에서는 지카비루스 감염증의 매기물인 모기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소독과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분계연선과 립진강을 낀 리인 민병원들이 더욱 각성을 가지고 잘 지도해주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매체는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미리 막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위생 선전자료와 각종 소독약 및 살충탄, 소독약 분무기들을 해당 단위들에 보장해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계획한대로 미리미리 앞세워 내밀고있다”고 덧붙임.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6. 4.

- **美상원의원, 사이버범죄-인권침해 관련 대북제재도 강화해야(연합뉴스)**
  -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를 환영하면서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드너 의원은 이 법안(H.R.757)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임.
  - 가드너 의원은 “재무부가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외에도 사이버범죄와 인권침해 등 대북제재법에 명기된 다른 제재도 철저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함.

## 2016. 6. 5.

■ **北, 美 재무부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에 강력 규탄배격(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 재무부가 자국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5일 "미국의 행동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북한은 "부당한 유엔 제재결의로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자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단독제재, 추가제재를 만들어 유엔 제재결의의 빈 구멍을 메꾸고 전면적인 봉쇄를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자금세척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국과 금융정보국을 내오는 등 국가적인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 지원 반대법을 채택했다"며 "테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 데 대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기구와의 협력을 계속 긴밀히 해오고 있다"고 주장함.

## 2016. 6. 7.

■ **美, 5억원 들어 '제재대상 北인사' 자금 5천만원 동결(연합뉴스)**

- 미국 재무당국이 2014년부터 1년간 제재대상 북한 관련 인사에 대해 4만 달러가량의 자금을 적발해 동결한 것으로 전해짐.
-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제재대상 북한 관련 인사들에 대해 총 9건, 4만800달러(4천700여만원)의 자금을 동결함.
- 정부 당국자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북한이 제재를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제재 효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위장회사 등을 내세워 제재를 회피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함.

## 나. 북·중 관계

## 2016. 6. 6.

■ **中서 6자회담국 1.5대화 NEACD...北 참석여부 주목(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대화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이달 하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지난달 7차 당 대회 이후 제재국면 탈피를 위해 대화공세에 나서고 있어 참석 여부가 주목됨.
-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북한의 참석 여부와 각 나라 참석자 윤곽도 드러나야 한다”고 말함.

## 2016. 6. 8.

### ■ 中, 北 플루토늄 재처리 동향에 대화·협상 재개 강조(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8일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에 대해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 북핵 문제를 조속히 대화·협상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영변 재처리 시설 재가동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함.
- 아마노 총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위성사진 분석 등을 근거로 그런 분석을 제기함.

## 2016. 6. 10.

### ■ 中, 북중박람회 일정 공식 확정…대북 경험 회복 조짐(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측이 당초 이번주 개최예정이던 한중(韓中)국제 박람회를 돌연 연기하고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던 북중(北中)박람회 일정을 발표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5회 중조(中朝:중국과 북한)박람회를 오는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신개발지 귀만(國門)항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한편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최하는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북중박람회는 2012년부터 매년 10월 단둥에서 열렸으며 작년 행사는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참석한 뒤 열려 주목을 받았음.

## 다. 북·일 관계

2016. 6. 4.

### ■ 제재 대상 北선박, 日 입항 확인...정부는 부인(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인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이를 부인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지도를 확인한 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 ‘룡림(RYONG RIM)호’가 3일 오전 11시 12분(현지시간) 일본 규슈(九州)섬 동부에 있는 쓰쿠미 항구에 공식 입항했다고 4일 전함.
-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히로유키 마세 대변인은 3일 VOA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사실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인지했고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면서 “문제의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말함.

2016. 6. 8.

### ■ 日, 北 플루토늄 정보수집 강화...아베 위성정보센터 방문(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8일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개별적인 구체적인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미국, 한국과 확실하게 연대해 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 및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함.

## 라. 북·러 관계

2016. 6. 8.

### ■ 러시아, 北 플루토늄 생산 재개 소식에 우려 표명(연합뉴스)

- 러시아도 8일(현지시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활동 재개 소식에 우려를 표시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영변 핵단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과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 소식은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힘.



- 페스코프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과 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6. 7.

### ■ IAEA “北, 영변 핵 재처리 시설 가동했을 수도”(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힘.
- 아마노 총장은 이날 위성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우리가 확보한 북한의 5MW급 원자로 활동, 농축 시설 확장, 플루토늄 재처리와 연관된 활동 등에 관한 자료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함.
- 아마노 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IAEA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함.

### ■ 폴란드, 핵실험 이후 北노동자에 비자발급 안해(미국의소리)

- 폴란드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6월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를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 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밝힘.
-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증은 지난해 현재 482건이라며, 이는 전체 발급 건수의 0.7%밖에 안된다고 밝힘.

2016. 6. 9.

### ■ 우간다 北과 협력중단 행동으로…軍 정보책임자 다음주 방한(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하기로 한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9일 “우간다와 북한 간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간다 정부가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이는 우간에 50~60여명 규모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및 인민보안부(경찰) 등 고문단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2016. 6. 10.

■ **유엔, 北 김정은 직함 ‘당 제1비서’→‘위원장’ 변경(연합뉴스)**

- 유엔 사무국이 북한 김정은의 공식직함을 노동당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최근 변경함.
- 유엔 사무국 산하 의전연락 담당부서는 최근 홈페이지 상 국가별 국가 정상, 정부 수반, 외교 장관 명단에서 북한 김정은을 북한 노동당 위원장(Chairman),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First Chairman), 북한군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등 3개의 공식타이틀과 함께 소개함.
-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외국 정상과 수반 명부 코너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아직 노동당 제1비서(First Sec)로 표기하고 있음.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6. 8.

■ **北,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세계 최악…韓 29위(미국의소리)**

- 북한이 소형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가장 나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스위스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 에릭 버먼 국장은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4개 나라가 소형무기 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4개국 모두) 0점을 받았다”며 “4개 나라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美 국무부 고위관리 “북한, 플루토늄 생산 재개”(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MW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관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재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전문매체 38노스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과 같은 미국 기관들은 올해 들어 영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

운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고, 이런 지적들은 지난 4월부터 더 자주 제기됨.

■ **美연구원 “북한, 핵개발 외 재래식 무기에도 상당한 투자”(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대에서 재래식 무기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함.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체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 미 국방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핵무기 이외 분야에서 북한의 계산된 움직임에 주목함.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은 구식인 재래식 무기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근처의 장거리 포병 화력을 강화하고 (남한과) 일본을 사정 거리에 둔 이동식 탄도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美 국무부, 北 핵재처리 관련 동향에 큰 우려(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5MW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는 언급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큰 우려"를 표함.
-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언행(言行)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힘.
- 국무부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잠재적인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에 대해 증언한 점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며 “우리(미국)는 계속 국제기구뿐 아니라 지역, 국제적 동반자들과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동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임.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더 높이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그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함.

## Ⅱ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4	한미 국방,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토록 긴밀 협력(연합뉴스)	
	6.7	미국 국방부 "사드 배치 한-미 협의, 계 획대로 진행"(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5	김홍균 6자수석, 8일 우다웨이와 회동... 북중대화 이후 방중(연합뉴스)	
	6.7	추귀홍 "평화협정·북핵해결, 한 테이블 에 놓고 병행추진"(연합뉴스)	
	6.8	김홍균 6자수석, 오후 베이징행... 中 우 다웨이와 북핵 논의(연합뉴스)	
	6.9	김홍균 6자수석 "中, 방중 리수용에 명 확한 비핵화 입장 전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4	한미일 국방장관, 北핵·미사일 정보공유 증진키로(연합뉴스)	
		日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중요"... 韓 "여건 조성돼야"(연합뉴스)	
	6.8	軍, 동해서 독도방어훈련 개시... 日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6.7	윤병세, 12일 취임후 첫 러시아 방문... 대북 압박외교 가속(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4		주미대사,美中관계 너무 중요...남중국해 문제로 파탄 안돼(연합뉴스)
	6.5	'상그릴라 대화' 남중국해 美中 난타전 점입가경...위험수위 설전(연합뉴스)	
		中 해군, 남중국해 갈등속 미국 주도 '림팩' 참가(연합뉴스)	
	6.6	美中 투자협정 급물살...3차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연합뉴스)	
		美中 '철강 과잉생산' 공방...“더 줄여라” vs “강제 어렵다”(연합뉴스)	
		'중국견제위해' 미국-인도 밀착...모디 총리, 2년 새 4번째 방미(연합뉴스)	
		미-필리핀 해군, 남중국해 합동훈련... 中 겨냥 공조과시(연합뉴스)	
		美·中 대립각 '확연'...시진핑, 갈등 불기피 vs 케리 중국압박(연합뉴스)	
		로스 美NSC 부보좌관, 中 대북제재 이행강도 계속 평가할 것(연합뉴스)	
	6.7	美·中, 기후변화·녹색·환경엔 협력강화 한목소리(연합뉴스)	
		美의회 “中, 北제재 않으면 미중 원자력 협력 중단” 추진(연합뉴스)	
		美케리 “미중, 북한 핵보유국 주장 불용에 동의”(연합뉴스)	
		美中, 남중국해 평행선...대북제재 이행은 공동 점검키로(연합뉴스)	
	6.8	美의회 “中, 北제재 않으면 미중 원자력 협력 중단” 추진(연합뉴스)	
이번엔 동중국해 상공서 미중 신경전... 美 中이 정찰 방해(연합뉴스)			
미·중 전략경제대화, 깊이 있는 토론 어렵다 한계 노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4	미일, 주일美군무원 범위 재논의...오키나와 만행 여파(연합뉴스)	

	6.10	군함갈등, 센카쿠 인근서 미·일·인도 연합훈련(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러시아</b>
미러 관계	6.5	러 국방차관 “한미 미사일방어 협력, 안정 파괴해선 안돼”(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6.4	日방위상, 방중 의향 전달...여러 과제 있으나 대화 중요(연합뉴스)	
	6.7	日방위상, 이웅산 수처와 회담...중국 견제 노림수(연합뉴스)	
	중일 6자회담수석대표 전화회담...대북제재 철저 이행(연합뉴스)		
중일 관계	6.8	동중국해 中日 해상전력 역전...中 경비함 2배 육박(연합뉴스)	
	6.10	중·러 군함 센카쿠 접속수역 동시 항행...日, 中에 새벽 항의(연합뉴스)	日관방 “中, 동중국해 긴장 높이는 행위 하지 말아야”(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6.5	중·러, 상그릴라 대화서 韓 사드배치 반대...韓, 과대평가(연합뉴스)	
	6.7	美와 ‘대립각’ 세운 중국, 러시아와 ‘反사드’ 한목소리(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6. 4.

##### ■ 한미 국방,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토록 긴밀 협력(연합뉴스)

- 한미 국방장관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환경, 한미동맹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함.

2016. 6. 7.

##### ■ 미국 국방부 “사드 배치 한·미 협의, 계획대로 진행”(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피커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배치할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함.

#### 나. 한·중 관계

2016. 6. 5.

##### ■ 김홍균 6자수석, 8일 우다웨이와 회동…북중대화 이후 방중(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힘.
-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 부위원장의 방중(5월31~6월2일)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김 본부장은 대북제재 및 압박과 관련해 한·EU간 공조, EU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 등 북핵, 북한문제 대응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 2016. 6. 7.

### ■ 추귀홍 “평화협정·북핵해결, 한 테이블에 놓고 병행추진”(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7일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을 지지하고 이 결의안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함.
- 추 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와 협상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함.
-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추 대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재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유엔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함.

## 2016. 6. 8.

### ■ 김홍균 6자수석, 오후 베이징행...中 우다웨이와 북핵 논의(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북핵 및 대북제재 논의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임.
- 지난 6~7일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알랭 르 루아 EU 대외관계청 (EEAS) 사무총장과 만나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한 김 본부장은 현지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출발, 이날 오후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우 특별대표는 김 본부장과 회의동에서 북한과의 대화 병행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임.

## 2016. 6. 9.

### ■ 김홍균 6자수석 “中, 방중 리수용에 명확한 비핵화 입장 전달”(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에 명확한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
- 8일 중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우다웨이



- (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에서 김 본부장과 리수용 방중 결과를 교환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함.
- 김 본부장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을 서로 교환했다”, “제가 지금까지 듣던 중국의 입장과 같았다”며 중국 측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을 시사함.

## 다. 한·일 관계

2016. 6. 4.

### ■ 한미일 국방장관, 北핵·미사일 정보공유 증진키로(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4일 지난 2014년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증진해 나가기로 함.
-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합의함.
-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1년 만임.

### ■ 日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중요”…韓 “여건 조성돼야”(연합뉴스)

-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측은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4일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엄중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평가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의 중요성을 간략히 발언했지만, 한 장관은 여건조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힘.

2016. 6. 8.

### ■ 軍, 동해서 독도방어훈련 개시…日 매우 유감 항의(연합뉴스)

- 우리 군이 8일 해경과 함께 동해상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하며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함.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함.
- 군 관계자는 “동해상 기상이 양호해 오늘 해경과 합동으로 독도 주변 해상에서

-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했다”면서 “훈련은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힘.
-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인 만큼,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군 관계자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우리 군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독도방어훈련도 현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함.

## 라. 한·러 관계

2016. 6. 7.

### ■ 윤병세, 12일 취임후 첫 러시아 방문…대북 압박외교 가속(연합뉴스)

- 쿠바 방문을 마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2~13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은 13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조 대변인은 이번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정세,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6. 4.

### ■ 주미中대사, 美中관계 너무 중요…남중국해 문제로 파탄 안돼(연합뉴스)

- 추이토펬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미국 정부의 태도를 공개로 비판하고 나섬. 추이 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주미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오도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함.
- 추이 대사는 “미국 내에서 중국의 정책과 의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돼있다”며 “오해와 오관이 부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단지 남중국해에서 정당한 영유권과 권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중 관계는 남중국해 문제로 파탄이 나서는 안되는 너무도 중요한 관계”라며 “양국은 갈등도 있지만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태지역이 미·중의 경쟁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2016. 6. 5.

■ **‘상그릴라 대화’ 남중국해 美中 난타전 접입가경…위협수위 설전(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음.
-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의 마지막 날 주제연설에 나선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마찰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험악한 설전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도 벌어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바탕을 둔 해양 질서에서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매립 활동과 군사 거점화를 비판함.

■ **中 해군, 남중국해 갈등속 미국 주도 ‘림팩’ 참가(연합뉴스)**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상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미군 주도의 해상 군사훈련에 함정을 파견하기로 함.
- 중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이 27개국을 초청해 이뤄지는 ‘201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 5척의 함정을 참가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환태평양 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군사훈련으로 격년으로 6~7월 중 하와이 근해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각국 해군의 역량을 겨루기 위한 목적으로 치러짐.

2016. 6. 6.

■ **美中 투자협정 급물살…3차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조속한 체결을 위해 자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세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주 중 미국에 제시할 예정임.
- 씨우후(搜狐)재경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중국측 대표인 왕양(汪洋) 부총리는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양국의 BIT 협상대표는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임.
- 이번 3차 네거티브 리스트 교환에서 미중 양국이 이견을 좁힌다면 미중 간 BIT 체결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큼.
- 천더밍(陳德銘) 전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3월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미중 간 BIT 협정 문안의 핵심내용이 이미 마무리됐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美中 ‘철강 과잉생산’ 공방…“더 줄여라” vs “강제 어렵다”(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6일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임.
- 미국의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дя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중국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여야 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함.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서 지속적인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가공세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비판도 곁들임.
-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전략경제대화의 ‘거시경제·정책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루 장관의 발언을 받아쳤다. 러우 부장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공헌할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이제 와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지목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음.

■ **‘중국견제위해’ 미국-인도 밀착…모디 총리, 2년 새 4번째 방미(연합뉴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 2년여 만에 4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인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 4일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5개국 순방에 나선 모디 총리는 6일 저녁(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다음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 양국이 이처럼 강한 유대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최근 아시아 전략의 중심 국가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분석함.
- 실제로 양국은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남중국해의 해상안보와 항해·비행의 자유”를 직접 거론하며 “모든 국가가 영토·해상 분쟁에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고 국제법 원칙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임.

■ **미·필리핀 해군, 남중국해 합동훈련…中 겨냥 공조과시(연합뉴스)**

- 미국과 필리핀 해군이 6일부터 5일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 인근에서 연례 합동훈련(CARAT)을 함.
-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필리핀 북부 수비크 만과 팔라완 섬 주변 해상에서 미 해군 구축함 스테덤, 상륙함 애쉬랜드,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해상작전, 상륙강습 훈련, 구난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임.

-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훈련으로 해석됨.

#### ■ 美·中 대립각 ‘확연’...시진핑, 갈등 불가피 vs 케리 중국압박(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 개막식 축사를 통해 “중미 양국은 특색과 역사, 문화, 사회 제도, 민중의 생각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번 회의는 케리 장관과 루 장관,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위원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케리 장관과 류옌둥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미·중 인문교류고위급 협상으로 나뉘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2016. 6. 7.

#### ■ 로즈 美NSC 부보좌관, 中 대북제재 이행강도 계속 평가할 것(연합뉴스)

-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군축협회(ACA)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후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후속 조치로 일환으로 언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을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원론적 답변을 내놓음.
-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 어떤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임.

#### ■ 美·中, 기후변화 녹색·환경엔 협력강화 한목소리(연합뉴스)

-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북핵,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등 주요한 민감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기후변화, 녹색, 해양환경 등 덜 민감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함.
- 양국 고위당국자들은 6일 전략경제대화 틀 내에서 열린 ‘기후변화 특별공동회의’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전함. 이 회의에는 전략경제대화의 특별대표인 미국 측의 제이컵 루 재무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중국 측의 왕양(汪洋) 부총리,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함.

- 케리 장관이 “미·중이 해양보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자 양 위원도 “미 중간 해양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공간이 매우 크다”고 화답하는 등 양국 고위당국자들은 해양환경, 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입을 모음.

#### ■ 美의회 “中, 北제재 않으면 미중 원자력협력 중단” 추진(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됨.
- 7일 미 의회에 따르면 ‘2016년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률안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각각 제출됨.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0월 개정 발표된 미·중 원자력 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루비오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 美케리 “미중, 북한 핵보유국 주장 불용에 동의”(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했다고 말함.
-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 폐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힘. 또 “미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임.
- 케리 장관은 “나는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 美中, 남중국해 평행선...대북제재 이행은 공동 점검키로(연합뉴스)

-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7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하며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를 마무리함.
- 그러나 양국은 철강 감산 문제를 비롯해 일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도 도출함.
-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 측면에서는 ‘공조’를 확인했지만, 압박 강화와 대화 병행 등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임.

2016. 6. 8.

■ **美의회 “中, 北제재 않으면 미중 원자력협력 중단” 추진(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됨.
- 7일 미 의회에 따르면 ‘2016년 미·중 원자력 협력과 비확산법’으로 명명된 법률안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각각 제출됨.
- 루비오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번엔 동중국해 상공서 미중 신경전…美, 中이 정찰 방해(연합뉴스)**

- 동중국해 공해 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근접해 정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미 공군 정찰기(RC-135)는 통상적인 정찰 활동 중이었으나 중국 전투기(J-10)가 동일한 고도에서 고속 비행을 했다고 전함.
-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공역에서 실시한 일상적인 정찰비행 중에 발생했다”며 적절한 외교·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홍콩에서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전투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며 근접 정찰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미·중 전략경제대화, 깊이 있는 토론 어렵다 한계 노출(연합뉴스)**

- 올해로 8회를 맞은 미·중 전략·경제대화(S&ED)가 짧은 일정과 과도하게 많은 참가자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됨.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선임 연구원은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략·경제대화가 초대형 모임으로 변형됐다”며 “이렇게 많은 장·차관들이 한꺼번에 참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 양국은 전날 폐막한 대화에서 과도한 철강 공급 제한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 등에 합의했지만,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문제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

나. 미·일 관계

2016. 6. 4.

■ **미일, 주일美군무원 범위 재논의…오키나와 만행 여파(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縄)에서 주일미군 군무원이 일본인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일본 양국 정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운용 방식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에서 미군 군속(군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양국 간 협의를 조만간 시작하기로 4일 합의함.
- 오키나와현 우루마 시(市)에 거주하는 20세 여성 회사원이 올해 4월 하순부터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지난달 오키나와에 체류하는 미군 군무원(미국 국적)을 시신유기 혐의로 체포함.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 기지의 70% 이상(면적 기준)이 집중돼 있어 미군 기지에 반대 여론이 강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6. 6. 10.

■ **군함갈등, 센카쿠 인근서 미·일·인도 연합훈련(연합뉴스)**

- 중국 군함이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닌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을 통과해 중일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가까운 수역에서 미국·일본·인도의 연합훈련이 시작됨.
-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인도 해군은 일본 규슈(九州) 남부에서부터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걸친 연합훈련을 10일 시작했다고 해상자위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힘.
- 일본 언론은 중국이 접속수역에 군함을 파견한 것 자체가 애초 동중국해에 근접해 이뤄지는 말라바르 훈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다. 미·러 관계**

2016. 6. 5.

■ **러 국방차관 “한미 미사일방어 협력, 안정 파괴해선 안돼”(연합뉴스)**

-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5일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밝힘.
- 안토노프 차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함.
- 안토노프 차관은 “미사일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은 구별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한미 미사일 방어협력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군축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라. 중·일 관계

2016. 6. 4.

### ■ 日방위상, 방중 의향 전달...여러 과제 있으나 대화 중요(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됨.
-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함.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쓴 부총참모장에게 말함.
- 이에 쓴 부총참모총장은 “가까운 나라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2016. 6. 7.

### ■ 日방위상, 아웅산 수치와 회담...중국 견제 노림수(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6일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과 회담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를 방문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수치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미얀마군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양측의 방위·군사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
- 일본이 미얀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로 보임. 나카타니 방위상은 수치와의 면담이 끝난 후 “미얀마의 안정과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는 등 이런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 중일 6자회담수석대표 전화회담...대북제재 철저 이행(연합뉴스)

- 중국·일본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고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7일 북한 정세 등을 주제로 전화 회담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힘.
-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로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뜻을 모음. 또 북한에 관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함.

## 2016. 6. 8.

### ■ 동중국해 中日 해상전력 역전…中 경비함 2배 육박(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일 양국간 해상전력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는 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동중국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공방전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우세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함.
- 결국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 압박 형태로 지구전을 벌이며 다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점유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도 2014년에만 208척으로 2011년에 비해 25배나 늘. 일본 정부는 이들 중국 어선이 앞으로 중일 해상전력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 중·러 군함 센카쿠 접속수역 동시 항행…日, 中에 새벽 항의(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접속수역(연안서 22~44km 구간)에 잇달아 진입함.
- 9일 교도통신과 NHK에 의하면, 중국 해군 소속 프리깃함 1척이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久場島·중국명 황웨이위<黃尾嶼>) 북동쪽의 접속수역에 진입한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함.
- 중국 해군 함정의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지역 군사기지화 행보를 강하게 견제하는데 대한 반발 조치일 가능성이 있어 보임.

## 2016. 6. 10.

### ■ 日관방 “中, 동중국해 긴장 높이는 행위 하지 말아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해군 군함이 전날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본 영해 밖 접속수역(22~44km)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에 대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브리핑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함선 등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중일 당국간의 ‘해상연락 메커니즘’에 대해 “조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과의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함.

#### ■ 중국판 항행의 자유인가...중군함 센카쿠 접근 배경 주목(연합뉴스)

- “미국이 전개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보복이다”, “먼저 들어간 러시아 선박을 추적하기 위한 자위대 선박의 출동에 대응한 것이다”
- 중국 군함이 9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접속수역(연안서 22~44km 구간)을 처음으로 항행한 데 대해 10일자 일본 주요 신문에서는 여러 분석이 난무함. 그 직전 러시아 군함 3척이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는 점은 분석을 더 어렵게 만들.
- 중국이 센카쿠 갈등의 수위를 새로운 단계로 높인 일이라는 점에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지만 러시아와의 공조를 포함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인지,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엇갈림.

## 마. 중·러 관계

2016. 6. 5.

#### ■ 중·러, 상그릴라 대화서 韓 사드배치 반대...韓, 과대평가(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35개국 대표가 참석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대화)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재확인함.
-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5일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함.
-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도 이날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한듯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강조함.
- 한편 전날 오전 열린 한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음. 이를 두고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반발하는 이슈를 굳이 꺼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함.

2016. 6. 7.

■ **美와 '대립각' 세운 중국, 러시아와 '反사드' 한목소리(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과의 제8차 전략경제대화(S&ED) 기간에 러시아와 별도의 '안보대화'를 열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
-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지난 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함.
- 양국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에 “결연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6.4	베를린 역사관광 명소에 북한 인권참상 기록물 영구전시(연합뉴스)
		미 입국 탈북 난민 두 달 연속 "0"(자유아시아방송)
	6.7	캐나다 북한인권단체들, 다양한 활동(자유아시아방송)
		미 상원의원도 이산가족 토론회 참석(자유아시아방송)
	6.8	네덜란드 대학, '북 해의 노동자' 토론회 개최(자유아시아방송)
	6.9	유엔 "북, 인도주의 위기 상황 '높은 주의 필요'"(연합뉴스)
		미국 방송, 평양순대 팔아 탈북자 돕는 탈북자 조명(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6.6	北매체, 케네스 배 비망록 출간 기자회견 발언 비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6.5	인권위 "北인권법, 탈북자 정보수집 통일부 사전협의 문제있어"(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지원 '심각' 조항 문제있다(자유아시아방송)
	6.7	민변, 통일부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연합뉴스) 통일부, 민변의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 접촉신청 불허(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6.5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민 첫 증가세...올 들어 600명 육박(연합뉴스)
대북지원	6.4	FAO "북한, 올해 쌀 160만t 수확 전망"(미국의소리)
	6.7	EU, 대북 지원 1억 5천만 달러 넘어(연합뉴스)
	6.8	WFP 5월 대북 식량지원, 전월대비 17% 감소(미국의소리)
	6.9	프랑스,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4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6.10	WFP, 7월부터 북한내 식품공장 4곳 재가동(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6. 4.

#### ■ 베를린 역사관광 명소에 북한 인권참상 기록물 영구전시(연합뉴스)

- 독일 수도 베를린의 역사관광 명소에 북한 인권참상 기록물의 영구전시가 시작됨.
- 사단법인 코모베를린(재독 한인인권옹호협회)은 3일(현지시간) 전시 장소인 체크 포인트찰리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상설전시를 공식적으로 알림.
- 전시물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갖가지 잔혹한 고문 및 총살 장면을 담은 스케치물과 각종 사진 이미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용된 요람, 안내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기록 관련 동영상 등임. 코모베를린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전시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시물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방침임.

2016. 6. 7.

#### ■ 미 입국 탈북 난민 두 달 연속 “0”(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7일 갱신한 난민입국통계에 따르면 4월에 이어 5월에도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함.
-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10년 간 받아들인 탈북 난민의 수는 197명에 머물고 있음.
-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6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 수는 지난해 11월 5명, 지난해 12월 1명 등 총 11명임.

#### ■ 캐나다 북한인권단체들, 다양한 활동(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탈북인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과 정전이 된 날인 7월 27일을 맞으며 북한인권 사진전을 진행함.
- 탈북인 연합회는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인 이유는 가난한데다 핵폭탄을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철저히 말살한 지구상에 가장 마지막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라며 이번에 사진 전시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힘.
- 이번 사진전에 캐나다의 탈북민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도, 대량 아사, 강제복송 등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자행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그림과 설명

으로 실감 있게 전할 예정이라고 함.

#### ■ 미 상원의원도 이산가족 토론회 참석(자유아시아방송)

- 한인 이산가족의 아픔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기록영화 상영회와 토론회가 오는 9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임.
-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주도해 온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을 비롯해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 대표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한인 청년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한다고 행사 주최 관계자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함.
-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지난 3월 9일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S.2657)'을 발의했으며 최근 의회 행사에서 만난 자유아시아방송에 올해 안에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이날 상영될 '헤어진 가족들'(Divided Families Film)이라는 기록영화는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한 뒤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한 한인 이산가족의 사연을 담음. 이산가족의 손자인 한인 2세 청년들의 손으로 만들어짐.
- 이산가족상봉추진위는 이날 토론회에 전국의 이산가족대표들도 참석한다면 토론회 이후 의회를 방문해서 미국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2016. 6. 8.

#### ■ 네덜란드 대학, '북 해외 노동자' 토론회 개최(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실태에 관한 1차 연구조사 보고서(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발표회가 다음달 6일 네덜란드의 라이덴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 대학 라이덴아시아센터(Leiden Asia Centre)의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고서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참상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 등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함.
- 북한의 훈련된 값싼 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유럽연합 국가가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고 고용허가증과 입국 사증을 발급해 외관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유린은 유럽연합과 국제 노동법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임.
- 브뢰커 박사는 북한이 인구 당 '노예' 비율이 20명 중 한 명 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북한 주민은 북한 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마저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함. 호주 측 오스트랄리아의 인권 단체 워크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국제노

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서 북한인구 2천 500만 명 중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상태라고 추정함.

- 브뤼커 박사는 폴란드뿐 아니라 네덜란드, 나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같은 실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함. 라이덴아시아센터와 이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 협회(EAHRNK) 등이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 2016. 6. 9.

### ■ 유엔 “북, 인도주의 위기 상황 ‘높은 주의 필요’”(연합뉴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9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16년 지역 주의 모델’(Regional Focus Model)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함.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이번 ‘지역주의 모델’ 보고서가 아시아 36개국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위협도’, ‘인도주의 위기 취약성’, 그리고 ‘대처능력’ 등을 종합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함.
- 이 중 북한은 이번 평가 결과 높은 주의 (‘High Focus’)가 요구되는 국가로 분류됨. 북한과 함께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임.
- 북한은 특히, 개발과 자원 부족 항목에서 7.4 점, 식량 안보에서 9.2점을 받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된 데다가, 정권의 부정 부패와 제도가 둘 다 8.8점을 받아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 대처 능력도 매우 낮다고 분석됨.
- 한편, 유엔은 북한이 대북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책정된 액수가 1억 1천 100만 달러인데 2015년에 이 중 4천만 달러만이 모여 사업 자금 부족이 심각하다고 설명함.

### ■ 미국 방송, 평양순대 팔아 탈북자 돕는 탈북자 조명(미국의소리)

- “탈북자가 순대를 만들어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마영애 씨를 집중조명한 미국 ‘NBC’ 방송의 6일자 기사 제목임.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 식당에서 평양식 순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마 씨는, 수익금으로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한편 ‘NBC’는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98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2만9천137 명에 달한다며, 2008년 한 해 2천803 명까지 치솟았던



탈북자 수가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천277 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힘. 또 전체 탈북자 중 미국에 정착한 경우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0 명이 채 안 된다고 지적함.

- ‘NBC’는 전체적인 탈북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6. 6.

### ■ 北매체, 케네스 배 비망록 출간 기자회견 발언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약 2년간 억류했다가 석방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비망록 출간 기자회견 발언을 거칠게 비난함.
- 6일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케네스 배가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잇달아 비망록 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한 발언을 언급하며 배씨를 “우리 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중범죄자”, “그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도 할 말이 없는 자”라고 힐난함.
- 메아리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며 반공화국 적대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을 거대한 감옥이라고 심히 중상모독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악랄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체포되어 15년의 교화형을 받았으나 우리 공화국의 관대정책으로 2년 만에 풀려났다”며 “(그가) 교화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인도적 견지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주었다”고 주장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6. 5.

### ■ 인권위 “北인권법, 탈북자 정보수집 통일부 사전협의 문제있어”(연합뉴스)

-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함.
- 인권위는 이달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힘. 인권위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제13조 3항임.
- 상임위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다고 규정한 시행령안 6조 1항의 문제점도 지적

됨. 위원들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함. 이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인권위 의견 표명에 반영하기로 함.

2016. 6. 7.

#### ■ 북한인권법 지원 ‘심의’ 조항 문제있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인권법의 시민단체 지원 ‘심의’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제작 단체 등에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최대 관심사로 자리잡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7일 서울에서 열고 시행령 제정안의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함.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제안서에서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북한인권법 제10조를 문제 삼음. 이 조항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만든 기구가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심의 기구로 둔갑한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면서 “심의 절차를 통일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본래 취지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라면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일시적으로 떠난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안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함.

#### ■ 민변, 통일부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연합뉴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겠다면서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한 것으로 7일 전해짐.
- 통일부 관계자는 “민변은 지난달 27일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을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금명간에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민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힘.
-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요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하자, 최근 중국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서를 제출함.

#### ■ 통일부, 민변의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가족 접촉신청 불허(연합뉴스)

- 통일부가 지난 4월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기 위한 민주사회

- 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7일 허가하지 않음.
- 통일부 관계자는 “민변은 지난달 27일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의 재북 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교류협력법에 따라 불가 입장을 오늘(민변에) 통보했다”고 밝힘.
  -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요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하자, 최근 중국에 있는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서를 제출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6. 5.

##### ■ 김정은 체제 이후 탈북민 첫 증가세…올 들어 600명 육박(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수가 올해 들어 완연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59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함.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와 올해 5월 제7차 당 대회와 관련한 노력동원이 이어지면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북한 주민의 불만이 커진 것도 탈북민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5. 대북지원

2016. 6. 4.

##### ■ FAO “북한, 올해 쌀 160만 수확 전망”(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160만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해 4일 보도함.
- FAO는 전날 발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60만(도정 후 기준)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봄. 이는 북한이 지난해 도정 후 기준으로 130만의 쌀을 생산한 것보다 30만 증가한 규모임.
- 아울러 FAO는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을 수입해 170만의 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옥수수) 생산량은 250만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 FAO는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북한을 식량 부족국가로 지정해옴. 이번 분기 식량 부족국가에는 아시아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등 7곳이 지정됨.

## 2016. 6. 7.

## ■ EU, 대북 지원 1억 5천만 달러 넘어(연합뉴스)

- 유럽연합이 1995년부터 130여 가지 대북 사업에 1억 3천 530만 유로, 미화로 1억 5천 39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시민 보호 위원회(ECHO) 관계자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 액수에는 핀란드적십자사가 2016년 초부터 2017년 11월까지 추진 중인 재난 대응프로그램에 사용될 30만 유로 즉 34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함. 향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임.
-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에도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20만 유로 즉 22만 7천 달러를 지원했고,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20만 유로와 13만 2천유로를 국제적십자사에 지원함.
- 유럽연합의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농촌 주민의 생계 보호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함.

## 2016. 6. 8.

## ■ WFP 5월 대북 식량지원, 전월대비 17% 감소(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월보다 17%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WFP는 V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2만4천여 명에게 1천610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이는 지난 4월 64만여 명에게 1천960t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7% 감소한 규모이며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 수도 목표의 60% 수준으로 조사됨.
- 이 기간 육아원과 탁아소, 소아 병동 내 어린이 49만여 명과 임산부 13만4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WFP는 설명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취약계층 한 명이 WFP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은 하루 평균 83g에 그친 수준임.
- 특히 이는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WFP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규모임. WFP는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9천500만(2천259억원) 달러를 정했지만 1일 현재 모금액은 절반 수준인 9천900만 달러에 그침.

## 2016. 6. 9.

## ■ 프랑스,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4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 어전스’와 제 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프
- 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식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15만 유로, 17만 달러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016. 6. 10.

## ■ WFP, 7월부터 북한내 식품공장 4곳 재가동(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중단됐던 식품공장 가운데 4곳을 7월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WFP는 현재 6곳만 운영되는 식품공장을 4곳 더 재가동해 10곳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오는 7월부터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와 60개 시·군에서 주민 170만 명에게 새로운 영양 사업을 시작한다고 WFP는 설명함.
- 북한 주민 170만 명에게 2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영양 사업에 1억2천600만 달러(1천46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